괴테클럽 독서 감상문

작성자	오동환	토론일	2022/5/27
도서명	체스 이야기	저자	슈테판 츠바이크
별점	4.5/5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의 광기어린 등장인물과 츠바이크 특유의 핍진한 문체로 그려낸 점이 만족스러웠고, 대립하는 두 인물의 배경 설명의 배분이 적절했다. 다만 마지막 체스 이후, B박사의 뒷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한줄평	한 턴에 메타포, 한 턴에 조국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맙소사!" 그가 창백해진 입술로 속삭였다. "제가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했나요? 아니면 그런 행동이라도 했나요? ……결국 제가 또다시……?"

"공격하는 방식이 그다지 나쁘지 않던데요. 그 신사양반, 딜레탕트치고는 비상한 재능을 가졌던걸요."

감상

첸토비치가 천부적인 악마의 재능으로, 츠바이크의 성향이나 당시의 시대상을 봤을 때 즉 히틀러를 은유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츠바이크는 작품 내내 알량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사회성이 떨어지고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나 그런 요소에도 체스 애호가들은 환호를 마다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납작해 보일 수 있는 첸토비치의 캐릭터에 츠바이크는 액자식으로 첸토비치의 유년기를 삽입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보다 츠바이크가 더욱 공들인 등장인물은 B박사로, 이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광란의 나치 치하의 억압받는 지식인을 은유한다. 흥미로운 점은 (체스에 관한) 맹목적인 광기를, 히틀러의 은유인 첸토비치가 아닌 이 지식인 캐릭터에 부여한 것인데 이 작품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체스 장면(츠바이크의 인상적인 문체 때문인지 매우 극적으로 표현되었고, 이런 점에서 영상 매체로 제작되어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에서 첸토비치를 완전히 모욕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은 통쾌한 한편, 윤리성을 지녔던 지식인의 왜곡된 욕망을 표현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결국 B박사는 이 왜곡된 광기에 사로잡혀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버려 결국 첸토비치에게 패했고, 이는 츠바이크가 유럽 지성계에 주는 경고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체스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고 돌아선 B박사의 서사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내가 츠바이크였다면, B 박사를 후련함과 후회, 앞으로 있을 공포의 딜레마 속에서 자살시켰을 것 같다.